

# 캄보디아에서 사기 한국인 1000명?... “실제론 더 많다”

현시간 뒤 미복귀년 최고 3000명  
泰·베트남으로 입국도 상당수  
일부 범죄단지엔 사체 조각장  
장기매매·사망 숫자 예측 불허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발 스캠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캄보디아 피싱스캠 사기 범죄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000명 남짓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이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000~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2024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5476명→3만5606명→8만4378명→10만820명이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363명→3만2397명→8만1716명→9만7572명이다. 올해의 경우 1~8월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6만6745명만 되돌아왔다.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는 2021년 6074명, 2022년 6만4040명, 2023년 17만171명, 2024년 19만2305명, 2025년 1월~7월 10만6686명을 기록했다. 특정 연도에 따라 우리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이들 사이에서도 캄보디아 ‘웬지(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스캠 범죄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한 1000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다.

특히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는 피해를 입거나 폭행·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도 알려진 것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심지어 범죄단지 관여자 주변에서는 “일부 범죄단지는 자체 조각장이 있다”며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는 장기 매매도 이뤄진다. 웬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감금·납치·폭행 피해를 본 한국인을 구조하기 위해선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연관이 있는 한국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별 출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검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과자·마약사범·미복귀자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급격히 늘면서, 캄보디아발 항공 노선이 신항 범죄 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검

토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해마다 폭증해왔다.

더 큰 문제는 마약밀수와 납치감금 피해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으며, 최근에는 신종 마약 ‘러쉬(Ruch)’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이 적발되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이 마약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올해 들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 중 약 80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3건에 달하며, 국외 조적범죄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맹세희 기자 msh@skyedaily.com

## 문신 합법화됐지만... 염료 안전망 ‘구멍’

문신사범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신사가 33년 만에 직업적 권리를 인정받게 됐으나 법 시행전까지 제도적 공백과 관리 미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 기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하며, 비의료인의 문신 기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문신 기술은 불법이 되었지만, 문신의 범위가 모호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왔다. 지난달 비의료인의 문신 기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범’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의 2년은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회색시대’로 남아있고 현재까지 문신 기술용 염료의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신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업신고서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 업체는 105개소다. 문신용 염료는 6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9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현장조사했다.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5개 업체는 점검이 이뤄졌으나 영업신고를 안내받은 수준에 그쳤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없었다.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하면 염료의 무균·정밀 수입 검사도 필수인데 검사는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

법 시행까지 2년 제도 공백  
과거 염료 업체 105곳 영업  
식약처 관리 후 11곳만 신고

무균·정밀 수입검사 단 1건  
규제 피하려 온라인 유통도

고 나머지 41건은 6개월 이내에 자가 품질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별도 상태로 수입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됐다.

염료 수입검증을 받은 한 업체는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유통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부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2년에는 2074건의 문신용 염료 수입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4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강화나 신고 의무화 등으로 업체들이 수입을 꺼리게 된 것이다.

문신법에서 문신은 크게 흔히 ‘타투’(tattoo)라고 부르는 서화문신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으로 구분된다. 탈모를 가리기 위한 두피 문신은 최근 독립된 제조·수입허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9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현장조사했다.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5개 업체는 점검이 이뤄졌으나 영업신고를 안내받은 수준에 그쳤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없었다.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하면 염료의 무균·정밀 수입 검사도 필수인데 검사는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

은 중독,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

염,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피부에 침습되는 문신의 특성상 바늘 못지 않게 염료의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신사범 시행까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서둘러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화문신, 미용문신 구분 없이 단일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기술자들은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시행 후 2년까지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 등을 받으면 문신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문신사범에는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문신사는 면허 취득 후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문신엔 일회용 바늘을 이용자 1명에게,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와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문신 시술 전에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유의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용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문신 제행행위는 문신사에게 금지되어 이미 새긴 문신을 지우려면 의료인을 찾아가야 한다. 미성년자가 문신하려면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김신진 기자 smkim@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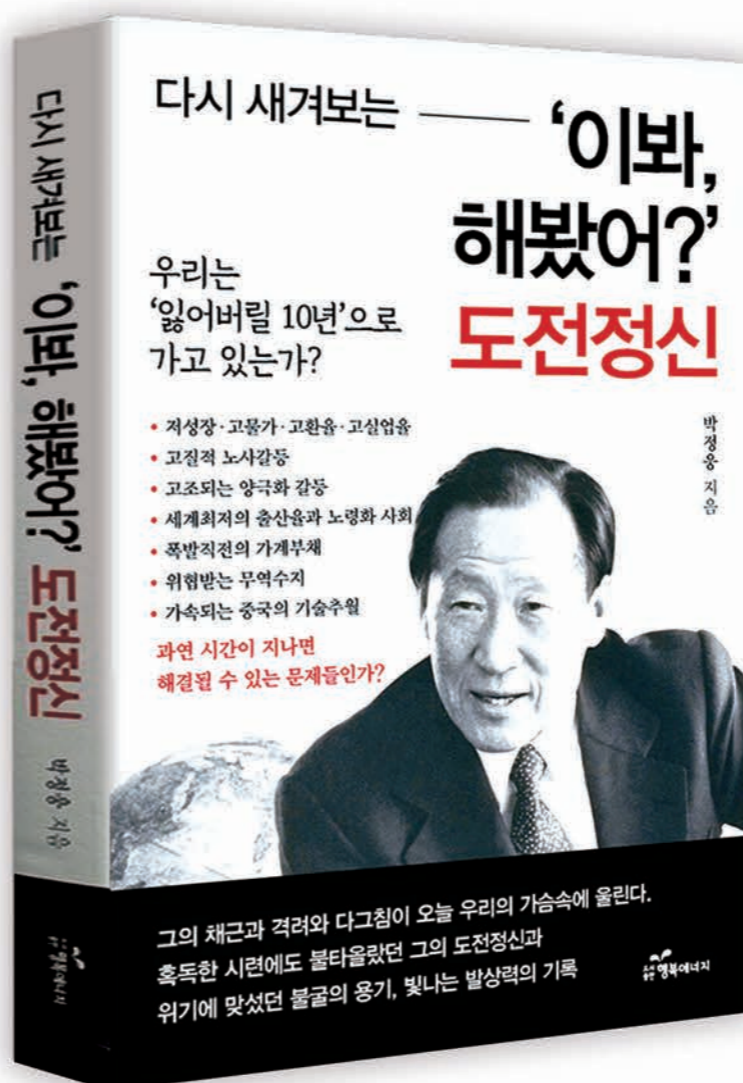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를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았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성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절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쟁겼던 ‘콘스’와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 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